

2019년 3월 5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급락 후 장 후반 낙폭 축소 폼페이오 “합의 최종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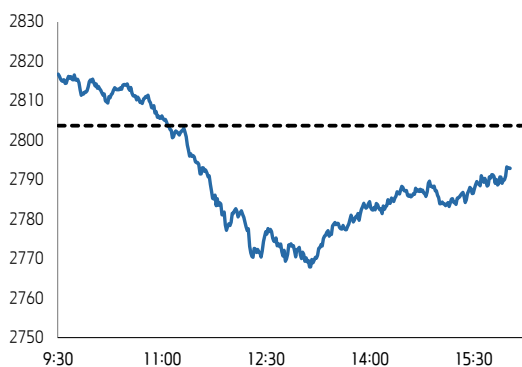
### 미 증시 하락 요인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속에 상승 출발 했으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더불어 최종 합의안에는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부담. 다만, 장 후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다우 -0.79%, 나스닥 -0.23%, S&P500 -0.39%, 러셀 2000 -0.89%)

미 증시는 ①미·중 무역협상 ②개별 업종 이슈 영향을 받아 하락. 먼저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종 합의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협상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주장. 폼페이오는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점은 최근 라인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장 했듯, 해결해야 될 내용이 많음을 시사한 점이 부담. 한편, Wsj 가 ‘최종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도 했으나,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부담. 이와 함께 일부 투자은행들이 “협상 타결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어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것” 이라고 분석한 점도 영향.

한편, 개별 기업 이슈도 영향. 2 주전 상원 재정위원회는 인슐린 가격에 대한 초당적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일라이릴리가 기존보다 50% 저렴한 저가의 인슐린 제네릭 버전을 발표. 2001 년에서 2015 년 사이 인슐린 가격이 585%나 급등하자 미 의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인데 관련 회사가 약가 인하 정책을 발표한 것임. 이 결과 의회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제약, 바이오 업종이 부진. 한편, 아마존 등은 민주당이 ‘망중립성’ 제개를 위한 법률을 수요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상승했으나, 통신업종은 부진하는 등 망 중립성을 두고 업종간 엇갈린 모습.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90.66	-0.22	홍콩항셱	28,959.59	+0.51
KOSDAQ	748.07	+2.30	영국	7,134.39	+0.39
DOW	25,819.65	-0.79	독일	11,592.66	-0.08
NASDAQ	7,577.57	-0.23	프랑스	5,286.57	+0.41
S&P 500	2,792.81	-0.39	스페인	9,259.80	-0.09
상하이종합	3,027.58	+1.12	그리스	704.21	-1.18
일본	21,822.04	+1.02	이탈리아	20,718.30	+0.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바이오업종 하락

세일즈포스(-3.66%)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락 했다. 어도비시스템즈(-2.22%), 오라클(-0.90%)도 동반 하락 했다. 한편, 세일즈포스는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외로 3% 하락 중이다. 자일링스(-3.02%)는 부정적인 애널리스트 보고서 발표 이후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반면, 아마존(+1.46%)는 양호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며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망중립성을 재개하기 위한 법안을 수요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페이스북(+3.14%)도 동반 상승 했으며, 알파벳(+0.43%) 등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바이오젠(-2.05%)은 영국의 유전자 치료 회사인 나이트스타(+66.09%)를 68% 프리미엄을 부여한 금액으로 인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하락 했다.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일라이릴리(-1.07%)는 저가의 인슐린 제네릭 버전을 발표했으나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시장은 약가 인하 논리로 해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장 투석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 최근 관련 산업에 진출한 CVS헬스(-3.73%)는 실적 부진까지 겹치며 하락 했다. 유나이티드헬스(-4.12%), Humana(-4.59%) 등도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59%	대형 가치주 ETF(IVE)	-0.46%
에너지섹터 ETF(OIH)	+0.34%	중형 가치주 ETF(IWS)	-0.32%
소매업체 ETF(XRT)	-1.93%	소형 가치주 ETF(IWN)	-0.48%
금융섹터 ETF(XLF)	-0.64%	대형 성장주 ETF(VUG)	-0.36%
기술섹터 ETF(XLK)	-0.38%	중형 성장주 ETF(IWP)	-1.0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2%	소형 성장주 ETF(IWO)	-1.29%
인터넷업체 ETF(FDN)	-1.03%	배당주 ETF(DVY)	-0.56%
리츠업체 ETF(XLRE)	+0.4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2%
주택건설업체 ETF(XHB)	+0.7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9%
바이오섹터 ETF(IBB)	-0.96%	미국 국채 ETF(IEF)	+0.31%
헬스케어 ETF(XLV)	-1.36%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76%	물가연동채 ETF(TIP)	+0.14%
반도체 ETF(SMH)	+0.01%	Long/short ETF(BTAL)	-0.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9.64	+0.20%	+1.14%	+2.13%
소재	344.17	+0.20%	-2.07%	+2.59%
산업재	637.82	-0.48%	-0.70%	+5.44%
경기소비재	873.56	-0.16%	+0.30%	+3.24%
필수소비재	557.96	-0.12%	-0.01%	+2.10%
헬스케어	1,059.39	-1.34%	-1.04%	+0.87%
금융	438.91	-0.62%	-0.24%	+1.58%
IT	1,244.15	-0.39%	+0.09%	+6.32%
커뮤니케이션	155.24	+0.03%	+0.54%	+1.98%
유틸리티	288.68	+0.21%	+0.77%	+4.28%
부동산	215.35	+0.41%	-0.02%	+1.7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리커창 중국 총리 발언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9%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839 계약)에도 불구하고 1.15pt 하락한 281.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5.5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 A 주의 MSCI EM 지수 편입 규모 확대 여파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미 증시가 장 중 폼페이오 재무장관의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여파로 하락 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된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국 증시는 오늘 개막하는 중국 전인대에서의 리커창 총리의 연설 내용에 따라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감세 등 경기 부양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미국 1 분기 GDP 성장률을 0.3%로 전망 했다. 이 여파로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 및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건설지출 둔화

12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6% 감소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8%)나 예상치(mom +0.3%)를 하회한 수치다. 전년 대비로는 1.6% 증가에 그쳤다. 한편, 민간부문 지출도 전월 대비 0.6% 감소 했으며, 공공 부문 건설 지출 또한 0.6% 감소했다.

3 월 유로존 섹터 투자자 기대지수는 전월(-3.7)이나 예상치(-3.1) 보다 양호한 -2.2 로 발표되었다. 이는 향후 유로존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OPEC 의 공급 감소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했다. 더불어 미국 셰일 기업들의 지출삭감 계획이 발표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이달 말에는 산유량이 지난 10 월보다 하루 22 만 8 천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장중 무역협상에 대한 폼페이오의 부정적인 발언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 여전히 변동성이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미국의 1 분기 GDP 성장을 둔화 우려도 일부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분명한 소식이 전해지며 여타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강세폭은 제한 되었다. 엔화 또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유로화는 ECB 통화정책을 앞두고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제채권은 주가지수 하락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부정적인 발언 여파로 하락 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종 합의까지는 많은 이슈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많은 점도 하락 요인 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38%, 철근도 1.1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59	+1.42	+2.00	Dollar Index	96.606	+0.08	+0.20
브렌트유	65.67	+0.92	+1.17	EUR/USD	1.1342	-0.20	-0.14
금	1,287.50	-0.90	-3.16	USD/JPY	111.73	-0.14	+0.60
은	15.105	-0.99	-5.17	GBP/USD	1.3179	-0.17	+0.63
알루미늄	1,875.00	-2.24	-1.63	USD/CHF	0.9988	-0.05	-0.19
전기동	6,409.00	-1.07	-1.10	AUD/USD	0.7091	+0.17	-1.06
아연	2,751.00	-1.22	+1.18	USD/CAD	1.3307	+0.08	+0.91
옥수수	374.75	+0.47	-1.38	USD/BRL	3.778	+0.58	+0.83
밀	455.50	-0.38	-3.65	USD/CNH	6.7088	-0.08	+0.39
대두	916.00	+0.49	-0.97	USD/KRW	1124.90	+0.02	-0.03
커피	97.35	-2.84	-2.50	USD/KRW NDF1M	1125.52	-0.08	+0.8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24	-2.90	+6.15	스페인	1.169	-2.60	+1.00
한국	2.025	+4.00	+2.30	포르투갈	1.462	-2.30	0.00
일본	0.004	+1.10	+3.90	그리스	3.661	+2.80	-10.50
독일	0.158	-2.50	+5.00	이탈리아	2.736	+0.50	-3.50